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민건강과 보건산업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

국민보건향상 기여를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관이 있다.

2020년부터 3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 기관'에 이름을 올린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이 그 주인공.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과 스마트케어 모델개발 등 새로운 사업의 성장을 이끌어 공익적 투자를 강화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의료 R&D지원사업의 기획과 평가·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나아가 국제 시장에서 보건의료 기술과 제품이 경쟁 우위를 선점하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보건·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요성·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 정부는 우리나라 백신 자주권 확보와 차별 없는 글로벌 백신 공급을 위해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단을 설립했다. 이에 진흥원은 글로벌 백신 허브화 지원 조직을 구성해 백신 개발 활성화, 글로벌 협력 등 다양한 지원을 수행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지역사회와 함께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는 차순도 원장을 만났다. (편집자주)

Q 지역사회공헌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국민건강과 보건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라는 비전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보건 산업 분야별 전문성과 연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며 많은 노력을 해왔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임직원들의 자발적 사회공헌 기금을 마련하여 지역 소외계층에게 '나눔 의료'를 실천하였고 지역 소외아동과 해외 독립운동가 후손의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 지역사회가 가지는 문제점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공공기



청주 오송읍에 위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경.

국제시장 보건의료 기술·제품 선점... 해외 진출 자원 강화 차별 없는 백신 공급 위해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단 설립

관들과 지역경제 활성화·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오송사회적가치 실현협의체'(이하 오가협)를 구성했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더 큰 관심을 갖게 됐다.

Q 사회공헌활동으로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충청권의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고령자 디지털 문해력 개선사업·일자리 지원과 독거노인 생활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소외계층 아동·위기 아동 생활개선 지원, 사회복지시설에 물품과 의약품 등을 지원하며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 해외 희귀병 질환자의 국내 치료를 위해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하였고, 임직원의 지역화페 사용을 독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ESG의 세계적인 관심 속에서 지역사회 친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주민 캠페인 활동과 투명한 사회를 위한 청렴 캠페인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사회공헌을 위한 가장 큰 성과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실험, 지역 병원 인프라 연계, 개방형 실험실 사업 추진 등 코로나 팬데믹을 위해 기관의 고유 업무와 연계하여 국민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Q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에 선정된 배경을 꼽는다면?

2022년 진흥원은 ESG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환경, 사회공헌, 윤리경영에 대한 추진전략 수립, 내·외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거버넌스 운영,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13개에 달하는 사회공헌 협력 네트워크와 내부 사회공헌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책임 전담체계 개선과 지역사회문제인식을 통한 해결방안 등 6대 추진과제별 10개 실행과제, 20개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Q 사회공헌활동으로 얻은 성과는 무엇인가요?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과 코로나19 대응, 세계적인 ESG 환경 대두 등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극적 참여로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 3년 연속 수상, 공공부문 K-ESG 대상 수상 등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기관으로서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무엇보다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사랑나눔 기금' 마련, '사랑나눔 봉사동호회' 운영, '전사적 ESG 사업 발굴' 등 직원 한명 한명의 노력이 응집되어 진흥원의 사회공헌 활동이 추진됐고, 이것이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의 토대가 됐다.

Q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진흥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보건의료산업 개발·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또 충북지역의 노인 자살률 1위, 초고령 사회 진입 등 고령자 확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산업체 발굴·지원·고령자 대상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Q 앞으로 지역사회공헌 계획을 소개해주세요.

앞으로 기존 사회공헌 활동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글로벌 수준의 지역상생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중장기 로드맵 재수립과 이행체계를 점검 뒤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2023년에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이해관계자 네트워크를 확대·충북 지자체와 협력하여 통합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할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 고령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고령산업체 발굴·지원, 체험을 통한 일자리창출, 이해관계자 통합 네트워크를 통한 우수사례성과 공유의 장을 마련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충북도, 의료비 후불제 지정병원 현판 제막식

충북대학교병원 등 협력 의료기관 자긍심 고취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의 협력 의료기관 중 하나인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의료비후불제 지정병원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충북도는 9일 협력 의료기관 중 하나인 충북대병원에서 의료비 후불제 지정병원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의료비 후불제는 목돈 지출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신해 도가 의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는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는 선순환적 의료복지제도다.

충북도와 협약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12곳과 치과 등 병·의원 68곳에서 신청서 제출 뒤 치료 받으면 된다.

신청대상은 도내 거주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이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질병은 임플란트와 슬관절·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심·뇌혈관수술 등 6개 질환이다.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3년간 무이자로 분할상환하면 된다.

우려사항은 의료비를 갚지 못하거나, 지원금액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대형수술은 지원받지 못하는 환자가 있을 수 있다.

신용불량자 외에 직업이나 소득,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대출이 이뤄지는데 원금 상황이 연체되면 충북도가 이를 대신 갚아야 하는 구조다.

미상환율이 늘면 충북도의 부담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는 연체율을 최대 30%로 추정하고 미상환 지급 예산을 편성했다.

도는 이달 중 혜택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 연령 제한도 없앨 계획이다.

충북 못난이 김치와 제주 굴 특산물 교류

지역 특산물 홍보·저소득 취약계층 온정 손길 전례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와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가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18일 설 명절을 맞이해 충북과 제주의 상호 특산품인 '충북의 못난이 김치'와 '제주의 굴'을 교류해, 제주의 굴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전달식을 가졌다.

본 행사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 달 21일 단양구인사 행사 시오영훈 제주지사와의 만남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각 지역 특산물을 홍보함은 물론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온정을 선사 할 기

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에 충북에서는 가격 폭락 등 이유로 밭에서 수확하지 못하여 버려지던 충북 농가의 배추를 최상의 상품으로 재탄생시킨 '못난이 김치'를 특산품으로 했고, 제주에서는 겨울철 대표간식으로 제주 농가의 정성과 따뜻한 기운을 머금은 굴을 특산품으로 했다.

이러한 특산품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KHIDI 환경 캠페인 진행하는 모습.



공공기관·지역사회 협력 디지털 도우미 봉사단 활동식 기념촬영.

도서출판 유한사

28505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85 (우암동 224-6)

285, Daeseong-ro, Cheong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TEL:(043) 255-0504, 253-0504 FAX:(043) 222-0504

H.P: 010-9566-0504 E-mail: youhansa@hanmail.net

각종 교육 교재
책자제본·스프링제본
칼라복사·칼라출력
대형코팅·현수막출력
대형칼라흑백출력

복사-출력 및 제본의 명가

청주시, 장애인복지사업 역대 최대 예산 투입

전년대비 14.2% 증액된 1495억원, 디지털배움터 건립

청주시는 올해 장애인 관련 예산으로 전년대비 14.2% 증가한 1495억원을 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디지털배움터 건립, 재활시설 확충 및 지원강화, 장애인급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해 장애인 권리를 보장한다는 목표다.

장애인디지털배움터는 기존 재활치료의 단점이었던 공간적 제약 없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가상경험과 정보교육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상반기 내 설계규모 후 연내 착공, 2024년 말 준공 예정이다.

장애인 생활시설인 충북재활원 마리아의 집은 고품질을 반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 3층, 연면적 1천65㎡ 규모로 증축한다.

92억원(국비 23억원, 시·도비 22억원, 자부담 4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연초에 건축인허가 마무리 후 착공하고 연말 준공 예정이다.

장애인 서비스 지원도 대폭 확

대된다. 장애인활동지원 강화를 위해 583억원을 투입,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장애인활동지원의 시간당 단가는 14800원에서 15570원으로 인상되고, 서비스 대상자는 2035명에서 2117명으로 확대되며 48억원을 들여 발달장애인들의 평생 돌봄을 강화한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 활동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최종 장애인의 1인 서비스 단가를 23050원으로 증액해 지원하고, 이용 시간은 하루 7.5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한다.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는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대상은 기존 712명에서 742명으로 확대되며 바우처 지원금은 월 3만원 인상돼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5만원까지 지원된다.

단기돌봄기관은 긴급돌봄 국비 시범사업 추진으로 기존 3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



충북재활원 중고령장애인 거주시설 조감도

고 단기돌봄기관이 포함된 44개소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26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장애인 안전·소득보장·일자리 지원이 강화되고 장애인연금 등 생활안전엔 253억원, 일자리사업엔 66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장애아동수당은 최대 22만원에서 26만원으로, 장애인연금은 38만7500원에서 40만1950원으로 인상된다.

일자리사업엔 66억원이 투입

돼 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등 496명에게 일자리가 지원된다. 임금 수준은 전일제 기준 월 191만4000원에서 월 201만원으로 5% 인상된다.

시는 복지시설에 빛과 소리를 활용한 맞춤형 경보시스템을 보급해 장애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재난상황에도 대비한다.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 4천여 개소에 대해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는 오는 5월부터 추진해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권 확보에도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단양군, 올해부터 산후조리비 300만원 지원

신규 출산시책 추진 등

단양군보건소가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저출산과 인구 감소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등 여러가지 출산 장려 시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부터 출산가정에 대해 출산 장려 산후조리비 300만원(다태아 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산부인과가 없는 단양에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매주 화요일, 목요일 주 2회 보건소 앞 주차장에서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임신 초기 검사, 풍진 검사, 태아 기형아 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초음파 검사 등 모두 전액 무료로 해주고 있어 임신부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이 낳기를 원하는 난임부부를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도 눈



올해 첫 출산가정 방문 축하 꽃다발 전달 모습.

길을 끈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난임부부는 회당 20~110만원의 난임 시술비 및 약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이 낳은 후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어 산모의 건강한 산후조리를 도와주고 있다.

그 밖에 임신 전·후 영양제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모유수유 지원사업, 무료 유축기 대여, 고위험임

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임신부 태교교실, 충북도 출산육아수당 1100만원 등을 추진 중이다.

한편, 단양군은 지난 3일 새해 첫 아이가 태어났다고 밝히며 지난 10일 출산 가정을 방문해 첫 아이 출생을 축하하고 새해 덕담을 나눴다.

새해 첫 아기는 매포읍에 거주하고 있는 산모 박 모 씨와 김 모 씨 부부 사이에 태어난 남아로 우렁찬 울음소리로 새해를 열었다.

진천군,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지역 특화형 발굴 시스템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진천군은 올 한해 한층 더 강화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군은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단선, 단수,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금융 연체 등 18개 기관 39종의 빅데이터 자료를 활

용해 왔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읍·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유선으로 위기 사실을 인지 하고 가정방문을 통해 위기 정도를 파악,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2,055가

구에 공공·민간자원을 매칭했다.

올해는 기존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 외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위기정보 입수대상자 조희를 통해 지역별 위기정보를 조합하고 지역 특화형 발굴 시스템을 구축해 혹시 모를 취약가구의 누락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건복지부 주관 고독사 예방 및 시범사업인 '생겨진 천 안부

확인 서비스를 통한 실시간 대상자 안부 확인과 위험 상황 대응 서비스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인적안전망도 강화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이장 등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확대 운영해 사각지대를 적극 찾아 나설 계획이다.

발굴된 요보호대상자는 신속한 보호를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지원 및 의료지원 등을 진행해 긴급한 위기 사유를 먼저 해소할 방침이다.

충주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지역 특성과 수요 맞는 이용자 모집... 사회복지서비스 발굴

충주시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이용자에게 사회복지 이용권인 바우처를 제공해 아동과 장애인, 청년, 노인 등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게 된다.

사업 모집 인원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 12개 분야 710명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부터 사업 내용에 따라 160%에 해당하는 가구로 서비스별 월별 이용금액과 이용 기간, 대상은 차등 적용되며 정부 지원금 이외 금액은 본인 부담이다.

해당 서비스 가운데 청년마음 건강 지원사업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으로 소득과 재산이 없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 3개월 내 사전·사후 검사 각 1회를 포함해 총 10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재 판정이 필요하면 최대 12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신청자는 신분증과 소득 관련과 사업별 요구 증빙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2월 1일부터 각 사업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천시, 사회적농업활성화 공모 5개소 선정

사회적 약자 돌봄 기능과 공동체 문화 활성화 효과적 진행

제천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한 '2023년 사회적농업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서 2개소가 추가로 선정되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업체가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사회적농업활성화 지원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사회복지(돌봄·교육·일자리 등)를 원활히 제공하도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으로 기존 운영하던

3개(췌청년마을, (우한방그린마을, (우에코마실)를 포함해 덕산농리협동조합과 (사)드림하이문화예술교육센터가 추가로 선발되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참여한 공동체 최다 선정(5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그 의미를 더했다.

한편 이 사업은 크게 세 분야로 구성되어 사회적 농장 연 6천만원, 거점농장 연 1억7천만원, 지역서비스 공동체 연 5천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돼 그 간 부족했던 지역 내 사회적 약자 돌봄 기능과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농촌지역 돌봄 기능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

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정된 덕산농리협동조합과 (사)드림하이문화예술교육센터는 지역 내 어르신, 장애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동행, 차량지원, 행정문서 작성지원, 건강 체조, 심리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김 영 석 사회복지 출판·홍보위원장 박 상 준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bvms043@naver.com 홈페이지 : www.cwin.or.kr

음성군, 여성·아동에 이어 고령친화도시 인증 추진

연구용역 추진... 3대 친화도시 완성

음성군이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에 이어 고령친화도시 인증으로 3대 친화도시 완성에 나선다.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고령친화도시 사업환경 분석과 가이드라인 개발, 실행계획, 평가계획, 네

트워크 인증 행정지원 등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3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군은 올해 9월께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신청할 계획이다.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면 2017년 여성친화도시, 2018년 아동친화도시와 지난해 재인증

에 이어 3대 친화도시를 완성한다.

고령친화도시에는 고령자들이 연령에 따른 환경 변화에 불편 없이 살도록 각종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도시를 이룬다.

시설, 여가, 일자리 등 WHO가 제시한 8대 영역 노인 친화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고령화율이 23%로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맛있는 나눔 사랑의 실천" 푸드뱅크가 함께합니다.
모두와 손잡고 나눔의 세상을 만듭니다.

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기부 식품군	모집가능기한
가공식품	제과류	스낵, 사탕, 껌, 초코렛 등
	즉석식품	면류(리얼, 소면, 스파게티 등), 즉석밥, 죽 등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케익, 비닐포장, 스테이크 등
정류 및 식용유	통조림	참치, 장조림, 과일통조림 등
	정류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등
신선식품	소스류	드레싱, 고기양념류 등
	기름류	식용유, 참기름 등
음료류	유제품	우유, 탄산음료, 멸균우유, 건강음료(홍삼) 등
	육가공류	햄, 캔, 소시지, 베이컨 등
제빙류	농산물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김치류 등
	기타	각종 슈퍼마켓, 제과점 병류

생활용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종류	모집가능기한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최소 90일 이전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최소 60일 이전
휴지류	화장지	최소 60일 이전
	물휴지	최소 90일 이전
수건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최소 60일 이전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최소 90일 이전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최소 60일 이전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최소 60일 이전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최소 60일 이전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가정용 살충제	최소 90일 이전

기부혜택
기업 및 개인이 푸드뱅크·마켓에 식품·생활용품 무상으로 기부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100%~10% 범위 내에서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충북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
(충북광역푸드뱅크)

기부방법
043) 234-1377
광역 대량 기부

전국 어디서나
1688-1377
지역 소량 기부

영동군, 사회안전지수 총복도 1위 '영예'

총점 53.97점 획득...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상위권 전선지중화 등 중심으로 균형개발과 삶의 질 향상 노력

올해로 3회째 맞은 사회안전지수는 대한민국 국민이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사회 안전도와 주민들의 불안 정도를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사회안전지수는 시민들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요소들을 경제활동, 생활안전, 건강보건, 주거환경의 4개 차원, 14개 하위영역, 71개 지표 항목으로 나눠 시·군·구별로 사회 안전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발표한 통계 및 조사자료를 활

용한 '정량지표'와 해당 지역 거주 주민들을 대상 설문조사를 반영한 '정성지표'로 측정됐다.

영동군은 이번 평가에서 사회안전지수 총점 53.97점을 획득하며 총복도내 1위를 기록했으며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상위권에 올랐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경제활동 가운데 고용지표가 70점을 넘어섰다.

전국에서 고용률이 높은 지역으로 알려진 세종시의 고용지표가 70.78점이란 점을 고려하면 주목할 만한 수치다.

군은 지역의 허리층인 청년세

대를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저소득층 청년 월세 지원, 정장 대여사업 등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했으며 영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실업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갔다.

주거환경 부문에서는 60.72점을 기록하며 전국 28위를 차지했다.

군은 그간 회전교차로 설치, 전선지중화 등을 중심으로 했 살가득 다담길 조성, 경부선 영동가도교 확장 등 균형개발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최근에는 가족센터 건립으로 건강한 가정만들기를 위한 사회복지 기반을 조성했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영유아 야외놀이터를 병행 건립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젊

은 세대의 정주여건을 개선했다.

군은 이러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소통과 공감의 기반 아래 주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평가에 긍정적 요소로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도 '생생지락(生生之樂)'의 자세로 영동에서 살아가는 즐거움과 자긍심을 느끼는 군정을 실현할 것을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

정영철 영동군수는 "새해시작과 함께 좋은 평가를 받고, 무엇보다 주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군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라며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살기 좋고 더 행복한 영동을 만들기 위해 7백여 공직자와 힘을 합쳐 흔들림 없는 군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동군, 2022 취약계층 통계 공표... '도내 최초 제작'

사회복지정책 수립과 각종 시책업무 추진 일환

영동군은 사회복지정책 수립과 각종 시책업무 추진의 기초가 될 '2022년 영동군 취약계층 통계'를 작성하고 통계청 승인을 거쳐 최근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 취약계층 통계는 도내 최초로 2016년 영동군에서 제작됐으며, 군은 2년 주기로 이 통계를 작성해 공표하고 있다.

사회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외국인 등 복지대상자에 대한 현황을 통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다.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취약계층의 인구수·주택·토지·건축물·복지·고용·건강에 대한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7개 부문 129개 항목

이다. 지난 5월부터 7개월여간 군청 내 각 부서와 관련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작성됐다.

군은 기존 온·오프라인 질의응답을 통한 통계조사 방법이 아닌 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활용해 취약계층 통계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실 조사에 따른 개인의 응답 부담 해소를 물론 예산 절감까지 가능하게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취약계층 통계는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군정시책 수립과 추진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질 높은 통계자료를 발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해당 자료는 영동군 홈페이지(www.yd21.go.kr)(영동소개)영동통계)취약계층통계)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는 기획감사관(☎043-740-3047)으로 하면 된다.

증평군, '군민에게 감동주는 평생복지' 실현 박차

분야별 맞춤형 복지정책 적극 시행

증평군은 올 한 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모든 군민들에게 감동주는 평생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간다.

군은 특히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촘촘히 구축, 분야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첫째로 '행복e음' 통한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이다.

'행복e음'을 통한 단수, 단전, 건강보험료, 임대료 장기체납 가구 등 취약계층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복지사각지

대 의심 대상자에 대해 현장을 방문하고 대상자를 발굴 및 지원한다.

둘째로, '360도 복지사각지대 ZERO화 시스템'이다.

활용 복지위기가구 제로화 자체발굴 시스템인 '360도 복지사각지대 ZERO화 시스템'을 활용해 전월 전기사용량 50KW 이하 및 수도사용량이 0인 가구를 임대료 장기체납 가구를 대상으로 꼼꼼하게 파악하여 복지위기가구 제로화를 추진한다.

셋째로, '초록의 안부인사' 사업 추진이다.

1인 위기 예상가구, 영유아를

둔 한부모 가구,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2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 내 녹죽업체 배달원과 협업체 안부 확인으로 복지위기가구 발생 예방에 나선다.

넷째로, '지역 복지 파수꾼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협력 사업' 추진이다.

지역주민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이장, 생활업종 종사자 등 무보수 명예직 파수꾼과 협력으로 위기가구 및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세대 발굴로 인적안정망 역할을 강화하여 민·관 공조체계 기능을 강화한다.

다섯째로, '퀵배달업체 음식 배달 사업' 추진이다.

지역 내 퀵배달업체와 협력

해 소외계층에 음식배달과 함께 안부 확인 위기가구 발견 시 신속한 복지서비스 연계 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주민 생활 밀착형 유관 기관인 우체국 및 도시가스회사, 신용회복위원회와 민간 업무협약 체결로 복지 인적자원망을 한층 두텁게 할 계획이다.

증평군수는 "우리 지역에 단 한 명이라도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민·관이 함께 협력하고 주민 모두가 주체가 돼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핀다면 훨씬 풍요롭고 행복한 지역이 될 것이라며, 감동주는 평생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모두 1055건, 공적급여 100건을 연계·지원했다.

옥천군, 경로당 운영비 지원 확대... '매년 10% 인상'

2025년까지... 회원수 구간별 9만원씩 차등 지급

옥천군은 올해 경로당 운영비를 작년 대비 10% 인상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공공요금, 부식비 등 생활물가 인상에 따라 안정적인 경로당 운영을 위해 이같이 결정하고, 회원수 구간별로 9만원씩 차등 지원해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

에 혜택이 가도록 했다.

이에 따라 30명 이하 경로당에 연간 148만5000원, 31명 이상 60명 이하는 166만5000원, 61명 이상 90명 이하는 184만5000원, 91명 이상은 202만5000원을 지급한다.

또 2025년까지 운영비를 연차적

으로 10%씩 인상할 예정이다.

황규철 군수는 "경로당 운영비 인상을 통해 어르신들이 좀 더 편안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위해 건강 체중, 노래 교실 등 건전한 여가 문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보은군, 2023 영유아 양육 바우처사업 첫 시행

유아용품·서점·장난감매장 사용 가능 바우처 지원

보은군은 2023년 영유아 양육지원의 일환으로 바우처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 보은군에 주소지를 둔 12개월 미

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용품점, 서점 및 장난감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월 10만원씩 만 1세가 될 때까지 지원한다.

군은 현재 시스템 구축과 관내 사업장을 둔 가맹점을 모집하는 중이며, 오는 3월부터 지원대상자 신청

을 받을 예정이다.

김인식 주민복지과장은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양육 부담, 경제적 문제로 출산을 꺼리는 부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자녀 양육에 필요한 유아용품, 도서 및 장난감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대책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은군, 다문화가정 자녀 장내 미생물 무료 검사 추진

한국질병예측연구소와 협약

보은군가족센터(센터장 정혜자)는 한국질병예측연구소와 군내 다문화가정 미취학 아동과 초·중·고등학생들의 장내 미생물 검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협약은 단일 유전 성향이 아닌 혼합 유전 성향인 다문화가정 자녀의 장내 미생물 환경을 조기 검사해 이들의 올바른 식습관을 유도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 협약이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군내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질병 예방 시스템 구축과 보급을 통



보은군가족센터는 다문화가정 자녀 장내 미생물 무료 검사 추진을 위해 한국질병예측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해 건강한 보은군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한국질병예측연구소는 군내 다문화가정 30여 가구의 자녀 50여 명을 대상으로 장 유형, 장 건강지

수, 암을 포함한 11종의 질병 유무 등 장내 미생물을 활용해 검사한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장내 미생물 무료 검사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알려졌다.

괴산군 치매안심센터, '찾아가는 조기검진' 실시

사각지대 대상자·고위험군 발굴... 적극 개입·집중 관리

괴산군 보건소는 2023년 2월 중순부터 '찾아가는 조기검진'을 괴산군 읍·면별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읍·면별 보건지소·보건진료소와 연계해 찾아가는 조기검진을 통해 치매 조기발견 및 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와 고위험군(75세 이상 홀몸노인 등)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집중관리를 강

화하고자 한다.

2023년 2월을 시작으로 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서 선정한 마을 및 대상자를 경로당 또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집에 방문해 조기검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치매조기검진 사업은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 예방·홍보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치매인식개선 및 올바른 치

매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찾아가는 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및 고위험군 어르신들의 치매안심망 구축 및 치매조기검진에 대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치매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043-830-2395, 2397) 및 24시간 365일 치매상담 콜센터(☎1899-9988)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충북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단체, 시민단체, 병원, 학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일반시민 등 전국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슈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은 분은 적극적으로 충북사회복지신문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세나 사회복지사 (T.043-234-0840~2)

지면	크기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7면	4단 (360mm×138mm)	흑백	200,000
8면	4단 (360mm×138mm)	컬러	250,000

게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국민연금 5.1% 더 받는다... 물가상승률 반영

105만 1000원... 20년전보다 수령액 40만원 증가

올해 1월부터 물가상승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5.1% 오른다.

지난해 연금 월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이달부터 105만 1000원을 받는다.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서 최초 연금수령 때 월 60만원대에서 시작한 수급자의 연금액은 20년 새 40만원가량 늘어났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기에 수급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해주는 장치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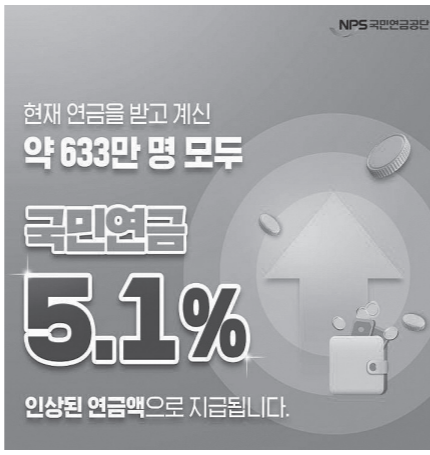
수급연령이 돼 받게 될 연금액을 정할 때 과거 연금 가입기간에 보험료를 낼 당시의 소득을 연금

을 받는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해주는 재평가 과정을 거침으로써 실질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 2003년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에 도달해 처음으로 월 66만 4310원을 수급한 A씨는 2023년 1월 105만19534원을 받는다. 최초 수급액보다 20년 사이 약 60% 늘어난 것이다.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함으로써 물가상승과 관계없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한다.

이는 개인연금 같은 민간 연금 상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공적연



국민연금공단 홍보 포스터

금만의 최대 장점이다. 민간 연금 상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상승에 따라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

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에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에 따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상승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그간 물가는 꾸준히 상승 추세다.

지난해 물가가 2021년의 두 배가 넘는 5.1% 오르며 외환위기 때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도 올해 1월부터 5.1% 오른다. 인상분은 오는 25일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취약가구 전기료 감면에 1186억 지원 · 바우처 단가 ↑

복지할인가구에 인상 전 단가 적용, 약 4100원 감면

정부가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해 취약계층 전기 · 가스요금을 지원한다. 전기요금 복지 할인을 받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4100원 수준의 추가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 단가는 기존보다 7000원 오른다.

정부가 4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 대책을 보면 이 같은 민생 부담 경감방안이 담겨 있다.

지난달 정부는 전기 · 가스요금을 점진 인상해 2026년까지 한전 · 가스공사의 누적적자 등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에 정부는 "대폭적인 전기 ·

가스요금 복지할인 지원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인상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의 경우, 1분기 요금 인상 와중에도 취약계층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이달부터 새 할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복지할인가구를 대상으로 월 평균 사용량 (313kWh) 까지 요금 인상 전 단가를 1년간 적용한다.

작년 평균 사용량 초과분에만 올해분 요금을 매기겠다는 것이 다.

4인 가구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이 307kWh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인상된 요금을 적용받는 복지할인가구 수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생계급여를 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월 313kWh 전력량을 사용하는 경우, 1분기 요금 인상을 고려한 당초 납부액은 5만 1727원에서 1만6000원(복지할인)을 제외한 3만5727원 수준으로 계산된다.

그런데 이번 할인에 따르면 납부액은 3만1627원으로 4100원(313kWh x 13.1원/kWh)이 줄게 된다. 이로써 정부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340만호에 1186억원 가량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스요금은 작년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고려해 올 1분기 동결하고 취약가구 요금 감면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노인 · 한부모 가정을 비롯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동절기(10월~이듬해 4월) 에너지 바우처는 15만2000원으로 7000원 더 오른다. 하절기(4만3000원) 바우처까지 합하면 올해 에너지 바우처는 전년 대비 1만원 오른 19만5000원이 된다.

생계 ·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소년소녀 가장과 한부모 취약가구를 지원하는 등유 바우처의 경우, 단가를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연탄 쿠폰도 연탄을 사용하는 5만 가구의 실제 수요 1200장을 고려해 지원 폭을 47만2000원에서 54만6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풍요롭고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약자법' 시행령 · 규칙 개정안 19일부터 시행

노후된 시내 · 마을버스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19일부터 노후화된 시내 · 마을버스와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차량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 예외승인 절차 등을 규정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여객자동차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중 시외버스를 제외한 모든 노선버스가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이다.

국토부는 시외버스의 경우 저상버스가 아닌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한 버스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내 · 농어촌버스 중 좌석형

의 경우 현재 국가 연구 · 개발을 통해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 중인 상황을 고려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한다.

도로의 구조 · 시설 한계 등으로 불가피하게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별로 교통행정기관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저상버스 예외 승인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 노선에 설치된 교량

등 도로 시설의 높이가 저상버스 높이보다 낮거나, 도로 경사가 급격히 변화해 저상버스 하부에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 그 밖에 도로 시설 · 구조 등 기타 사유로 인해 해당 노선이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등이다.

국토부는 예외가 승인되더라도 예외 사유를 해소해 추후 저상버스 도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도 마련한다.

또 교통행정기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저상버스 도입 예외노선, 사유 및 개선계획을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해 공개하고 국토부로 제출하도록 제도화했다.

'부모급여' 1월 수여자 약 25만명 예상

매월 25일 지급...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 부모급여 전환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부모급여'의 1월 수여자 약 25만명이 이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기준 영아수당 수급자가 전환되는 오는 25일에 약 25만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올해 1월부터 태어난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원을 받고,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지난해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지난해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원을 받는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

으로 받는다.

다만,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포(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부모급여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이다.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되며 주의를 필요하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올해 1월 기준 만 0세(2022년 2월생~2022년 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지난 15일까지 등록하도록 했다. 하지만 계좌정보 입력기간 중에 입력하지 못한 보호자는 복지포 누리집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오는 2월 25일에 1월분 18만 6000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한편 부모급여는 오는 25일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받을 수도 있다.

- (주거) 타운하우스(고령친화설계, 제로에너지) 형태로 분양임대주택 공급
- (서비스) 생활 인프라(국토부) + 주민자치(행안부)·돌봄(복지부)·체육(문체부) 서비스 등을 지역주민과 공동 활용
- (일자리) 이주자 직업 활동 제공을 통해 소득 창출 및 지역사회에 기여

지역활력타운 개념(예시)

주거 · 문화 · 복지 결합 '지역활력타운' 조성

5개 부처 협약 · 정착 지원

정부가 은퇴자 · 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활력타운은 단독주택 · 타운하우스 등 다양한 유형과 분양 · 임대 등 공급방식의 주거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관계부처 협업으로 문화 · 복지 등 필수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에 선정될 경우 각 부처의 연계사업을 통합 지원받게 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가 부처 협력을 총괄하고 문체부 · 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연계사업을 발굴, 협력한다.

소득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방 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종합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각계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활력타운은 단독주택 · 타운하우스 등 다양한 유형과 분양 · 임대 등 공급방식의 주거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관계부처 협업으로 문화 · 복지 등 필수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에 선정될 경우 각 부처의 연계사업을 통합 지원받게 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가 부처 협력을 총괄하고 문체부 · 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연계사업을 발굴, 협력한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지역활력타운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문체부는 국민체육센터 등 여가 · 문화 인프라를 확충한다.

복지부는 돌봄, 보건 · 의료 등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국토부는 주택 · 인프라 지원 및 지역개발사업 인허가,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급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이주자들이 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은 상반기에 공모를 통해 대상 시군구를 선정, 시범 적용하고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지역투자발전협약을 체결해 지원내용과 방식을 확정하고 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1. 지역사회봉사단이란?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2. 위촉 기준

- VMS 가입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3. 봉사단 혜택

-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
- 관리 및 봉사활동 연계
-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4. 신청 및 문의

-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과 박민정 코디네이터

전화 043)234-0840
홈페이지 www.cwin.or.kr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충북 사랑의 온도탑 12년 연속 100도 달성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2023 나눔캠페인' 출범식 모습.

전년대비 90.9%인 81억3000만원 돌파... 캠페인 이달 말까지

충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노영수, 이하 충북모금회)는 '희망2023 나눔캠페인' 성금 모금이 11일 현재 모금목표인 81억3000만원을 돌파하여 100도를 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 '희망2023 나눔캠페인'이 시작된 지 42일만이다.

"함께하는 나눔, 지속 가능한 충북"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불황을 고려하여 지난해 캠페인 모금액인 89억 3900만원의 90.9%로 모금목표를 정했다. 1월 2일까지 60도대로 더디게

올라 기부 한파를 우려하는 수준이었으나 다행히 지난해 연말의 각 시·군에 접수되어 전달된 성금이 집계되고 고액기부들이 쾌척되면서 사랑의 온도가 빠르게 올랐다.

1월 11일까지의 성금 내역을 보면 현금기부는 44억5300만원(52.9%), 현물기부는 39억5700만원(47.1%), 개인기부는 23억 1100만원(27.5%), 법인 및 기업

기부는 60억9900만원(72.5%)이다.

충북지역에서 1000만원 이상의 성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81억3900만원)에 52억8300만원으로 전체모금액의 64.9%를 차지하였는데 올해는 56억2000만원으로 전체모금액의 66.8% 상당이 모금되었으며, 중고액기부인 100만원에서 1000만원 상당의 모금액과 100만원 미만 모금액은 소폭 하락하여 고액기부가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충북모금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계부담이 커지고 기업 등이 어려워지면서 모금도 어려워 질것으로 예상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4년의 희망나눔 캠페인에도 사랑의온도가 계속 100도를 돌파하는 것은 어려울수록 더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는 충북도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희망2023 나눔캠페인'은 오는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도내 언론사, 읍면동 주민센터 성금 접수창구 및 모금회 사랑의계좌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맞춤형 주민 돌봄사업 성료

'금쪽같은 우리 동네 사람들' 주거환경 개선 등 서비스 제공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오재훈)에서는 1년간 수행해 온 '금쪽같은 우리 동네 사람들' 사업을 마무리했다.

'금쪽같은 우리 동네 사람들'은 홀몸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내 돌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주민이 주민을 돌봐주는 사업이며, 지난해 12월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 노인복지 공모사업에 선정돼 3년간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올해 안남면 화학리와 청정리 두 개 마을을 선정하고 마을별 돌봄 대상자 10명, 동네 복지사 4명, 돌봄 제공자 10명으로 구성해 돌봄 대상자를 돌봤다.

동네 복지사는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참여자가 투입돼 하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이 안남면 화학리에서 '금쪽같은 우리 동네 사람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루 3시간씩 돌봄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고, 돌봄 제공자는 주거환경 개선, 마을벽화, 건강, 미용, 상담 등 전문가가 참여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정리 돌봄 대상자 이모 어르신은 "예전에는 우리 집에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동네 사람들이 마실

와서 놀아주고 이런저런 얘기 해주니 살맛난다"고 말했다.

오재훈 관장은 "마을 특성에 맞는 돌봄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참여자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며 "앞으로 2년간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상자와 참여자 모두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대한적십자사, 모금 6년 연속 '전국 1위'



충북적십자사 직원들이 사옥 앞에서 적십자회비 6년 연속 전국 1위 달성을 기념하는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전국 15개 지사 중 최단기 내 목표 달성

개인이나 법인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 충북 도민들의 어려운 이웃을 향한 따뜻한 손길이 지속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회장 김경배 · 이하 충북적십자사)는

'2023 적십자회비 모금 캠페인'에서 충북적십자사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충북적십자사는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는 1월 31일까지 적십자회비 집중 모금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기

준으로 희망나눔성금 12억1731만원, 기부금품 7억3890만원 등 총 19억5621만원 모금했다.

충북적십자사 관계자는 "김경배 회장님의 열정과 리더십으로 기부와 성금 행렬이 이어졌으며, 확보된 재원으로 도내 취약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청원지역자활센터, 저소득층 일자리 확대 '맞손'

북대가경시장상인회 상호 협력

청원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경호)와 청주북대가경시장상인회(회장 김현수)는 북대가경시장상인회에서 운영하는 도담도담 카페에서 '저소득층의 일자리 확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상호발전을 위한 의견 교류 및 정보교환,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적자원 교류 협력, 상호 기관 홍보 및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 했



청원지역자활센터 센터장과 청주북대가경시장상인회 회장인 업무 협약 체결을 하고 있다.

다. 김경호 청원지역자활센터장은 "협약을 통해 '자활사업 영역이 확대 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도

모 하여 저소득층에게 자립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현수 회장은 "협약을 계기로 저소득층에게 좋은 일자리를 지원 하여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동참 하겠다"고 말했다.

청원지역자활센터는 청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자활근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택배, 외식, 도매, 자원순환, 이미용사업 등 13개 사업단에 90여명이 자활근로에 참여하여 대상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증평군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참여자 발대식



증평군노인복지관은 9일 증평군노인복지관 다목적홀에서 2023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발대식을 개최했다.

증평군노인복지관(관장 김용예)은 9일 증평군노인복지관 다목적홀에서 2023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용예 관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재영 증평군수의 축사와 참여자 근무복 착용식, 수행기관 행동강령, 일자리 대표자 선서 등이 진행됐다.

또 2부 행사에서는 좌구산에 숲단과 복지관 이용자들의 공연이 진행됐으며, 행사 후 봉사

단체 마중물(회장 김경인)에서 떡국을 후원해 발대식 참여자와 복지관 이용자에게 제공했다.

증평군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사업단은 올해 은빛파워도우미, 실버사랑올타리, 초등학교급식도우미, 은빛사랑채 등 4개 사업에 160명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군장애인복지관 '사랑의 온기나눔'

취약계층 장애인 25가정에 난방유 지원

음성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전호찬)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 중순까지 음성군 내 '사랑의 온기나눔' 참여기업의 후원금 지원으로 겨울철 취약계층인 장애인 25가정에 난방유를 지원했다.

매년 물가상승 및 난방유 가격 상승으로 취약계층 장애인 가정에 겨울나기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그 어

느 때 보다 어려움을 겪는 시기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음성군장애인복지관에서는 매년 '사랑의 온기나눔' 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사랑의 온기나눔' 사업은 지역 내 장애인 가정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겨울철 난방유 구입이 어려운 취약계층 장애인 가정에 연탄 또는 등유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매년 후원제안서 발송을 통한 음성군 내 기업 및 단체의 후원을 바

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랑의 온기나눔' 지원을 받은 차상위 가정 시각장애인 이수정(가명) 어르신은 "매년 등유 가격이 올라 날씨가 추워도 난방을 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랑의 온기나눔을 통해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후원자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전호찬 관장은 "난방비 후원을 해주신 지역 내 후원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후원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역 내 취약계층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원활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내게 꼭 맞는 사회복지정보를 한눈에!

정답은 충북복지넷!

www.043w.or.kr

충북복지넷

2023년 달라지는 사회복지 제도와 정책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 고용노동부...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 재산기준 완화 등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신청 허용 등 다양한 제도 · 정책 '눈길'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확대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이 완화된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4인 가구 기준 5.47%)됨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 154만원→162만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 구분 방식을 3급지에서 4급지로 개편하고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재산한도액 기준 등을 완화하며,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35000여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고 13000여 가구가 의료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계 인상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한다.

긴급복지지원금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이다.

4인 가구 기준 22년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며, 22.7.1부터 시행된 주거용재산 공제 및 생활준비금공제율의 인상된 기준이 지속적으로 시행된다.

● 장애수당 단계 인상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는 장애수당 인상을 통해 성인 경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2015년 이후 유지되었던 장애수당 단계(재가 월 4만원, 시설 월 2만원)가 2023년에 50% 인상(재가 월 6만원, 시설 3만원)된다.

장애수당 단계 인상을 통해 23년 총 41만명의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확대된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에서 장애수당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자분들의 편의가 더욱 증진된다.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지원이 더욱 강화된다.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지급되는 자립수당 지급액이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최대 5년간 매월 40만 원의 자립수당과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기본생활 보장 및 안정적 사회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부모급여 도입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하여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35만원을 지급한다.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꾸쳐로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하며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꾸쳐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지급한다.

신청은 온라인(복지포털(www.bokjiro.go.kr)@정부24(www.gov.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다.

● 재난의료비 지원 기준 완화 및 대상 확대

2023년 상반기부터 재난의료비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다.

기준 외래 6대 중증질환 지원에서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미용·성형 등 비필수 의료비는 현행처럼 지원 제외 유지한도는 기존 연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의료비 기준은 기존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하던 것을 10% 초과 시 지원으로 재산 기준은 5억 4천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사업 실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요양병원·시설에 입원·입소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서비스(재택의료, 방문간호 등)가 확충되고 다양한 의료-돌봄서비스(노인 맞춤형 돌봄, 방문건강관리 등) 간 연계가 강화된다.

시범사업은 23년 상반기 공모를 통해 12개 시·군·구를 선정하며, 25년까지 3년간 추진된다.

●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을 위한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및 중증장애

아동 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해 장애인 돌봄이 한층 두터워진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이 월 29시간 확대(125시간→154시간)되고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차감도 축소·폐지된다.

발달장애인 부모 및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모상담·부모교육·가족휴식 대상자를 확대한다.(2.5만명→3만명)

한편,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대상을 1만명 확대하고(6.9만명→7.9만명)바우처 지원액이 3만원 인상(22만원→25만원)된다.

또한,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돌봄지원시간을 120시간 확대(840시간→960시간)한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종사자 확대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여 혼자 힘으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현재 50만명의 어르신에게 제공하고 있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2023년에 55만명 대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대상자 확대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인력도 3,321명 확대하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실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와 민간 취업과 연계되는 민간형 노인일자리가 확대된다.

직업 경험이 풍부하고 건강하신 베이비붐 세대에 그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회서비스·민간형 노인일 자리를 제공한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동절기 소득공백 완화를 위해 23.1월부터 조기 추진하면서 동절기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워크북(동영상) 교육 후 활동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 확대

저소득 한부모 지원 대상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소득기준을 기존중위소득 60%으로 상향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기준이 상향되면 3만 명이 신규로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아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2년 10월부터 기준중위소득 53~58% 구간을 대상으로 월 10만원 지원하던 것을 23년부터 월 2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한다.

●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간소화

출생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자녀를 양육하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미혼부를 위해 지원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동안 출생신고 안 된 미혼부 자녀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사본과 함께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다. 2023년부터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먼저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관련 서류를 사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 미혼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지원시간은 늘리고, 지원대상은 넓히는” 보다 촘촘해진 아이돌봄 서비스가 시작된다.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1일 4시간)으로 확대하고, 정부지원 가구 대상도 1만 가구 늘려 8만5천여 가구로 폭넓게 지원한다.

여러 사정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함으로써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 확충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확대

22년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청소년부모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던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23년부터는 12개월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저소득 청소년부모가구의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 1인가구 긴급돌봄 서비스 도입

질병, 위기상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1인가구의 ‘건강한 삶 회복 지원’을 위해 병원동행 및 단기 가사·간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아파도 기립 가족이 없는 청년·노년 등 1인가구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액 인상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액이 연 15만 6천 원으로 인상된다.

작년 지원액 월 12000원 보다 약 8.3% 인상된 월 13000원으로 확대되어 보다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만 9~24세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생리用品을 지원받을 수 있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이 한층 더 강화된다.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확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만 9세~24세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 등 지원을 확대한다.

위기청소년의 형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촘촘하게 지원하고자 생활비 상한액을 월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생활 안정, 자립 지원 등 촘촘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을 확대했다.

또한, 소득에 따른 선정 기준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해 대상을 확대했다.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확대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 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대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참여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면서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조기취업시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만큼 지급한다.

아울러 조건부 수급자 대상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이 신설되고 구직촉진수당에 2회 총 100만원 수급하고 취업한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 100만원(잔여수당 200만원의 50%) 지원한다.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건(2022년 현재, 230만원 미만)을 완화하여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의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또한,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 연장·지원 확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기간이 늘어나고 지원수준도 높아진다.

취업으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69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백10580원(월 환산 기준 시간수 209시간, 주당 유급휴식 8시간 포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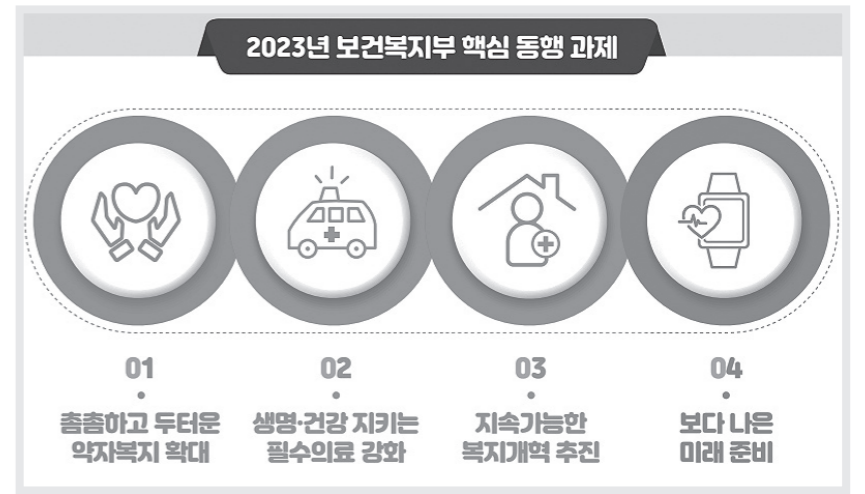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던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3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1% 각 초과금액이 산입된다.

(출처: 기획재정부)

“올해 이렇게 달라진다”



보건복지부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 허용

시행일: 2023년 1월 1일

Before
기존에는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은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After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이 허용됩니다.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도입

시행일: 2023년 1월 1일

Before
그동안 영아기 집중돌봄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After
부모되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모급여가 도입됩니다.

만 0~1세 아동 (22.1.1 이후 출생아)
영아수당 (현금 매월 30만원) 지급

만 0~1세 아동 (22.1.1 이후 출생아)
부모급여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보건복지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턱 낮추고 모든 질환 확대

시행일: 2023년 상반기

Before
지금까지 더 좋은 복지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After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모든 질환으로 확대합니다.

연 3천만원 (연말 모든 질환 외래) 6대 중증질환
의료비 연소득 대비 15% 초과시 재산 과표 5억4천만원 이하시

연 5천만원 모든질환 의료비 연소득 대비 10% 초과시 재산 과표 7억원 이하시

여성가족부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완화

시행일: 2023년 1월 1일

Before
중년에는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가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After
향후에는 미혼부 자녀는 아동양육비를 먼저 지원받고 사후에 관련 서류를 보완하면 됩니다.

아동 양육비 신청
유전자 검사 결과

아동 양육비 신청
유전자 검사 결과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 확대

시행일: 2023년 1월 1일

Before
꾸준하게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지원하여 왔습니다.

After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한부모가족 대상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한부모 대상 기준중위소득 (53~58% 이하)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신년사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모든 역량과 에너지 쏟아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시대 열 것”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토끼의 활기찬 기운으로 올 한해 충북이 풍요롭고, 도민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도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으로 제가 충북도정을 맡아 일할 수 있었고, 뜨거운 성원으로 충북의 미래를 향한 혁신과 도전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민선8기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비전을 세우고, 이를 도민 여러분과 공유하며 새로운 변화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은 세대가 출산과 이주 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셋째, 충북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충북의 새 이름과 새 얼굴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우리 농산품과 농민을 지키는 못나김치에 공정의 가치를 담았습니다.

호수·산림자원을 기반으로 관광거점을 마련하고 도심 빈 점포를 활용해 골목 갤러리를 조성하는 등 생태환경과 문화예술, 과학기술이 어우러지는 충북만의 독창적 가치를 창조해 내었습니다.

AI영재학교와 KAIST 오송바이오 메디컬 캠퍼스타운, 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건립하여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일도 충북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충북도정에 담긴 다양한 가치들은 대한민국과 충북의 재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넷째, 대한민국 혁신의 테스트베드가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의료비 후불제, 도시농부와 AI농업, 출산육아수당 등이 그 혁신 사례가 될 것입니다.

창조적 상상력에 기반한 이런 사업들이 도민의 삶을 바꾸고 국민을 행복하게 할 거라 믿습니다. 충청북도는 앞으로도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혁신을 앞에서 이끌겠습니다.

“꿈꾸고(Dream), 믿고(Believe), 도전하고(Dare), 실행하라(Do)”
13년 만에 이바타를 다시 선보이고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은 세계적인 미디어기업 윌트디즈니는 이 4가지 원칙을 통해 전 세계를 제패하는 콘텐츠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2023년 충청북도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로 도약하는 충북을 꿈꾸고 그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스스로를 가뭇던 한계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모든 역량과 에너지를 쏟아 내 튼튼한 도약 기반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계묘년 새해에는 도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일을 모두 이루시고 건강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미래산업 육성 등 경제 위기 타개

의료비 후불제·AI농업 등 혁신 이룰 것

2027년도 하계 세계대학경기를 우리 충청권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되었고, 2022 과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확인하였습니다.

세계적인 불황에도 30조원이 넘는 투자유치 실적을 거두었고, 역대 최대 규모인 8조 3065억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하며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발전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민선8기의 실질적인 첫해가 되는 올해는 도민 여러분과 함께 뿌린 희망의 씨앗을 내실있게 키워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겠습니다.

먼저, 충북의 권리를 찾겠습니다.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지역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담과 국립공원 주변이 특히 그렇습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댐 주변지역의 규제 완화를 통해 중부내륙시대의 초석을 다지는 한편, 댐 용수 등 물 자원 이용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여 수해 지역과 피해 지역 간의 불공정을 해소하겠습니다.

군사목적으로 1개의 활주로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청주공항의 현실에 대해서도 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둘째, 충북의 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창업 지원과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미래산업 육성 및 관련 기업 유치로 충북 경제를 젊게 변화시켜 저성장 국면의 경제 위기를 타개하겠습니다.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저출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예산 투자를 늘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젊

신년사 황영호 충청북도의회 의장

“위기를 기회로! 힘과 지혜 모아 행복 추구”

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검은 토끼의 해 도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운과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의 위협과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혼란과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35명의 의원으로 출범한 제12대 충청북도의회는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진정한 민의의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초를 다져왔습니다.



습니다. 저출산 시대, 아이 기르기 좋은 충북 실현과 장애인의 권리 확보 및 어르신들의 복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권리 회복·복지 구현 '총력'

충북 발전·도약에 든든한 협력자로

연구 모임 활성화 등 전문성 제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정책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정책·입법 분야 등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강화된 역량과 전문성을 보여주었고 보다 책임 있는 의회로 발돋움하였습니다.

또한 70년 만에 '의회 독립청사 건립'의 첫 삽을 뜨게 되어 유일하게 독립청사가 없는 도시 충북이라는 불명예를 벗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계 속의 충북으로 도약하게 될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공동유치에도 성공하였습니다.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충청북도의 회가 목표를 향해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성숙한 도민 의식으로 뜻과 의지를 모아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제12대 충청북도의회가 출범한지 2년 차로, 실질적인 여정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충청북도의회는 도민 행복과 충북번영을 위해 모든 힘과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민생을 촘촘히 보듬는 의회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국제정세 불안 및 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 위축 등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그 어느 해 보다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후불제 시행 등 의료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전하도록 하겠

신년사 김영석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길”

존경하는 충청북도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
희망찬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새해를 맞아, 충청북도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에 항상 기쁨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계묘년은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토끼는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큰 귀를 가지고 있고, 험난한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뒷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착하고 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에 비유하곤 합니다. 모래성은 한 번 툭 치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만큼 응집력, 결집력이 떨어지는 조직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다 보니 항상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나누고 베풀 줄 아는 행복한 한 해

전문성 강화해 최상의 서비스 제공

근무에만 열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새해에는 토끼의 기운을 받아 항상 좋은 일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충청북도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이,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일하는 사회복지 현장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이 길어지게 되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점점 어려운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서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지난 3년간 잘 극복해왔듯이 앞으로도 이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북도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
2023년 맞아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몇 가지 소망을 말씀드려봅니다.

첫째, 올 해는 사회복지 가족들이 행복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김형석 명예교수님께서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시며 '소유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나도 행복하고 사회도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나누고 베푸는 일이기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우리 사회복지 가족이 하나로 뭉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자들은 사회복지 조직을 모래성

그러나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우리 사회복지 가족이 전문성을 강화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자들은 사회복지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자는 분명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도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이를 활용하고 전파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문성 강화는 누군가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절실함을 느끼고 노력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넷째, 우리 사회복지 가족이 열악한 환경이라는 틀에서 벗어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정자들은 선거철만 되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지만, 막상 선거가 끝나면 없었던 약속이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젠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 우리 종사자들이 처우 걱정 없이 소신껏 근무에만 열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빠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 사회복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현명하게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충청북도 사회복지 가족의 가정과 직장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똑똑똑! 법률홍닥터입니다.

취약계층 법률 상담 서비스 법률홍닥터

법률홍닥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신청방법

시 간 월~금 10:00~17:00(공휴일 제외)
전 화 043-238-0843
사무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2호



이달의 법률상식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상 권리



신인경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Q 저는 마음에 맞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전제로 현재 같이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사망하면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외에도 혼인신고를 한 부부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관계를 의미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혼인신고를 전제로 발생하는 친족관계에 의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사실혼 배우자의 가족들과 사이에서 친족관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에 불과할 뿐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는 상속인이 될 수 없고, 혼인신고를 하여야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도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혼인신고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한해서는 혼인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도 동거부양협조정조 의무가 있고,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면 책임이 있는 배우자나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상 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인사동정

- 사회복지법인 충북현양복지재단 상록원 > 시설장 이상권 / 2023년 1월 1일자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청주사회복지관 > 관장 최승인 / 2023년 1월 1일자
■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 기관장 김종석 / 2023년 1월 1일자
■ 지적장애인가주시설 한터 > 시설장 박병태 / 2023년 1월 1일자

인사동정 이용 안내

●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사이동(기관장 변경, 법인 내 이동 등)에 대해 게재를 원하시는 시설은 문의 바랍니다. *043-234-0840 김세나 사회복지사

복지정보 제공

[사단법인 행복한국] 2023년 아동청소년을 위한 위기가정 지원사업 신청안내

-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 중위소득 80% 이하 취약계층, 경제적 어려움, 생계의곤란함을 겪는 노동취약계층
■ 지원항목: 교육·생계, 주거환경 개선, 공부방 지원, 의료비, 심리치료비
■ 지원기간: 2023년 1월~2023년 예산 소진시까지
■ 진행과정: 매월 모집, 선정 후 다음달 지급
■ 신청방법: 기관(주민센터, 복지관)을 통한 신청(개인신청 불가)
■ 제출서류: 홈페이지(https://www.m-letter.or.kr) 참고
■ 제출방법: 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신청대상: 매월 마지막 주 발표
■ 문의전화: 1661-8965

[푸르메재단] 2023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질환자 가족상담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희귀난치 어린이·질환자 가족상담 지원
■ 지원항목: 희귀난치어린이(재활치료비, 보조·치료기구, 의료비, 약제비, 소모품비 등), 희귀난치질환자 가족상담(가족심리·상담치료비)
■ 신청대상: 만18세 이하 희귀난치 어린이, 희귀난치질환자를 케어하는 가정
■ 지원금액: 만18세 이하 희귀난치 어린이(1인당 최대 400만원), 희귀난치질환자를 케어하는 가정(1가정당 최대 200만원)
■ 신청기간: ~2023.2.6.(월)
■ 지원기간: 2023년 3월~10월(최대 8개월)
■ 신청방법: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담당자 이메일 신청(개인신청 불가)
■ 제출서류: 홈페이지(https://purme.org/) 참조
■ 문의: 02-6395-7010, 02-6395-7018

[사단법인 오픈월드] 2023년 안경무료지원사업(우리아이 밝은아이 EYE)

- 사업대상: 시력에 어려움을 느껴 안경

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아동(선착순 30명)

- 지원내용: 맞춤형 무상지원(1인 10만원 상당)
■ 지원방법: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 제출
■ 제출기간: ~ 2023.2.3.(금)까지
■ 제출처: 메일(bmoomi@openworldkr.org), 팩스(02-2607-2050)
■ 참고: https://www.bokji.net/
■ 문의: 02-2088-1085 (사업담당자)

[KBS강태원복지재단] (마을단위NPO) 모집

- 신청기간: 상시접수
■ 신청대상: 마을단위NPO 협약을 희망하는 전국의 복지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www.kbsktw.com)
■ 협약혜택: 위기가정 지원 선정 시 1가정당 최대 500만원 지원, 사례관리비 지원(위기가정 지원금 10%), 재단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 문의: 02-781-2951

[사단법인 더불어함께 새희망]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2023.1.5.~2023.2.28.(화) (신청 지원자 초과 시 조기 마감)
■ 지원기간: 2023.1.5.~2023.2.28.(화)
■ 지원내용: 한 가구당 로타바이러스 접종비 2~3회 지원, 로타바이러스 접종 주기 4주, 10명 지원 예정
■ 지원대상: 기관 홈페이지 및 결과보고서에 사진사용이 가능한 가정(초상권 동의 협의가능), 저소득 한부모 및 미혼모가정 아동 중 생후 2~8개월 이하의 영아, 한부모 및 미혼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의 아동
■ 신청방법: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접수(parkse@youcan.or.kr)
■ 문의: 070-5147-5947
■ 참고: https://www.youcan.or.kr/

[한국의료복지재단] 2023년 재해근로자 지원사업

- 지원대상: 근무 중 사고나 질병이 발생

하여 현재 치료받고 있는 근로자, 산재보험 대상자 및 비 대상자, 외국인 근로자

- 지원기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30%이하 해당자
■ 지원내용: 발생 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 재활 약제비, 재활치료비 등
■ 지원절차
- 신청접수: ~사업 종료 시 까지
- 자격심사: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여부 심사(외부 의료기관 전문의를 통한 심사)
- 지원방법: 입원중인 경우는 의료기관 담당자 또는 사회복지사를 통해 신청 접수, 통원중인 경우는 개인이 직접 신청서 및 구비서류 준비 후 재단으로 우편접수

[밀알복지재단] 장애아동 의료비지원사업 신청안내

- 지원내용: 장애아동 수술비지원(500만원), 재활치료 및 의료 소모품 지원(최대 240만원)
■ 지원대상: 19세 이하 장애아동·청소년
■ 신청방법: 밀알복지재단 홈페이지 접속, 지원사업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 작성 증명서류 구비, 이메일 발송
■ 신청서류: 밀알복지재단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증명서류(3개월 내 발행본, 선택서류(의료증명서, 부재증명원)
■ 문의: 대표번호 070-7462-9135

[KT&G복지재단] 2022년 행복가정학습지원(아동) 신청안내

- 신청기간: 매월 1일~20일, 연중상시 진행
■ 신청대상: 저소득(차상위, 수급, 일반저소득) 가정의 학령기 아동·청소년(만7세 이상~만18세 이하)
■ 지원내용: 학습과 관련된 물품 구입비 10만원 지원
■ 지원가능물품: 학용품, 문체집, 일반도서, 교보, 책가방, 체육복(학교지정), 실내화 등
■ 신청방법: 매월 마지막 주 발표
■ 지원시기: 선정발표 후 2주 이내, 기관 명의 후원금 통장으로 입금
■ 신청방법: 매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연신청(복지기관을 통한 신청만 가능, 개인신청 불가)
■ 참고: www.ktingwelfare.org

자원 봉사자 모집

- ▶ 경로식당 식재료손질 및 설거지 관리센터: 청주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1.11 ~ 12.31 전화번호: 043-266-4761
▶ 초등,중등 교육(학습)지원 관리센터: 청주우리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1.10 ~ 12.31, 전화번호: 043-223-1051
▶ 경로식당 조리봉사 관리센터: 산남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1.10 ~ 12.31, 전화번호: 043-288-1428
▶ 도시락배달 봉사 관리센터: 충주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1.1 ~ 7.28, 전화번호: 043-855-3000
▶ 행정업무지원 봉사활동 관리센터: 음성군노인복지관 활동기간: 1.2 ~ 3.31, 전화번호: 043-883-2470
▶ 사무보조 봉사 관리센터: 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활동기간: 1.2 ~ 2.28, 전화번호: 043-212-9194
▶ 배식봉사 및 식당청소 봉사 관리센터: 괴산군노인복지관 활동기간: 1.1 ~ 12.31, 전화번호: 043-834-3411
▶ 매점운영 관리 및 지원 봉사 관리센터: 아름다운가게 청주신봉점 활동기간: 1.2 ~ 4.30, 전화번호: 043-276-1900
▶ 어르신 돌봄(프로그램 보조 등) 봉사 관리센터: 대소섬김노인복지센터 활동기간: 1.14 ~ 12.31, 전화번호: 043-216-1391
▶ 중학생 학습멘토링 관리센터: 중학생 학습멘토링 활동기간: 2.1 ~ 7.31, 전화번호: 043-288-9192
▶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자료출처: www.vms.or.kr

지역사회봉사단

봉우회, 무료 급식 나눔 봉사활동 진행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소속 봉우회(회장 김종섭)는 지난 1월 8일(일) 청주시 중앙공원에서 무료 급식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봉우회는 2010년 9월에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종섭 회장은 "시민들의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점심을 드시러 오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어 즐거움과 뿌듯함 역시 배가 되고 있다."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이 신경 쓰고 있으며, 언제나 따뜻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봉사활동이 가능하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유선(043-234-0840~2) 또는 이메일(mjip7117@naver.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늦기 전에! 위기가정 지원 솔루션

마을단위NPO 허브사업

KBS강태원복지재단과 함께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할 마을단위NPO를 모집합니다!!

'마을단위NPO'란?

- KBS강태원복지재단과 긴밀한 협력관계의 파트너 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내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하고 사회복지 정보 제공 및 필요한 자원 연계 등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
-2023년 마을단위NPO는 '전국 복지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추후 대상을 확대 예정

* NPO(Non Profit Organization): 비영리민간단체

신청기간 상시 접수

● 협약을 체결한 기관에 한하여 위기가정 지원 신청 가능

신청대상

마을단위NPO 협약을 희망하는 전국의 복지관

신청방법

www.kbsktw.com 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방법

kbsktw@daum.net / 02-781-2951

협약혜택

- 1. 위기가정 지원 선정 시, -1가정당 최대 500만 원 지원 -사례관리비 지원(위기가정 지원금의 10%)
2. 재단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3. <마을단위NPO> 기관 포상 등

신청서류

- 신청 공문 1부
-온라인 신청서(직인 날인)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기관 시설신고증 사본 1부
-기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사업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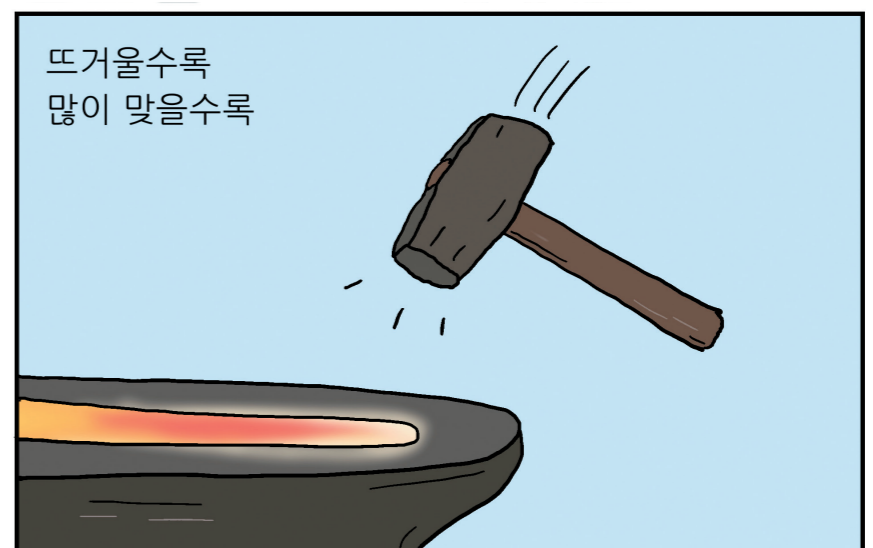
● 협약 완료된 <마을단위NPO>는 재단 홈페이지에 기관 정보가 노출되며, 홈페이지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KBS강태원복지재단

복지만평

담금질

이창신 www.bokmani.com



뜨거울수록 많이 맞을수록



냉탕을 오갈수록 쇠는 더 단단해집니다.